

## 10/19(화) 욥기 묵상 8

### 욥기 4: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의 세 명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 첫 번째로 욥과의 변론에 나선 인물로 그는 가장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자였습니다. 그의 말이 다른 친구들보다 (분량에 있어) 가장 길고 그의 수사적 표현도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엘리바스의 격려

엘리바스는 처음부터 욥의 고난을 분석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친구로서 욥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줍니다(2-4절,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싫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는 욥이 다른 지인들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동안 그가 그들에게 대한 태도와 행동을 말해줍니다. 욥은 선한 사람으로서 고난 당한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늘어진 자’와 ‘넘어지는 자’,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는 모두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엘리바스의 질책

엘리바스는 욥의 과거 진실했던 믿음을 잠시 격려한 이후에 이제부터 욥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욥은 남의 고난은 바르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고난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4-5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 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두려움에 떠나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 보인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된 어휘입니다(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은 욥에 대한 실망과 경멸까지는 아니지만 질책을 통해 욥의 신앙을 다시 바로 잡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6절,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걷은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약간 비꼬는 말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의 숨은 죄나 정직하지 못한 일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에게 있어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이 전부 아니며 아무도 모르는 위선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강한 위구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우게 됩니다(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는 ‘파종과 수확’의

법칙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행동과 결과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입과 콧김'에서 나오는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9-11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무리 강하고 힘센 사자와 같은 동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것은 엘리바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경험이 많은 지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여러가지 경험과 삶의 지혜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의지한 나머지 그가 가진 생각과 판단의 근거마저 자신의 경험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욥에게 언급한 '인과응보'의 사상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도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거나 또 이 세상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성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멕시코의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오픈도어 선교회는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개신교인에 대한 박해가 종종 마약 카르텔에 의한 폭력, 전통적인 가톨릭에 의해 자행되는 박해, 반기독교 좌파 단체에 의한 과격한 차별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멕시코에서는 사법적 제도가 아닌 지역 사회의 초법적 합의에 의한 소수 종교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현지 당국이 초법적인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신자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햄튼 3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가나 양광균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